베이비박스과 영아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설 아¹ · 김 희 숙²

인천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¹,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²

A Study on the Social Perceptions of the Baby Box and Infant Abandonment

Seol Ah Lee¹ · Hee Sook Kim²

Incheon Yeonsu-gu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¹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²

Purpos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perceptions of the baby box and infant abandonment.

Methods: The study included a survey on social perceptions of infant abandonment, including the baby box and permissiveness of infant abandonment. F-tests and t-tests were performed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permissiveness of infant abandonment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awareness of the baby box was high, and positive perceptions were slightly higher than negative perceptions due to the value placed on the abandoned child's life and safety, the unavoidable reasons for not rearing a child, and the child's quality of life after abandonment. However, the reasons for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baby box included the increase in infant abandonment and the decrease in parental responsibility toward the child. Second, the permissiveness of infant abandonment was generally low; however, the level of permissiveness differed according to age, education level, status, and marital status. For people who are in their 30s or older, hold a graduate or higher level degree, are employed, and are married, the permissiveness of infant abandonment was lower than that of other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urrent support policy for unmarried mothers should be changed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child care. Furthermore, we must strive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s of various family structures, including unmarri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child abuse, social perception

서 론

베이비박스(baby box)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한 자녀

를 키울 수 없는 이들이 익명으로 영아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시설로 맡겨질 영아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다(Park et al., 2017). 베이비박스는 중세 유럽의 수도원과 고아원 담장에 미혼모에 의한 영아유기와 살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2000년 전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지금의 형태를 띤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Kim, 2013).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100여 개의 베이비박스가 국공립병원 및 비영리조직 의료 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체코의 경우 비영리 단체에 의해 60여 개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민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으로 인정되어 베이비박스 존폐여부 및 민간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

*본 논문은 2018년 한국모자보건학회 미래모자보건학자상에 선정된 연구임

교신저자: 김희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31-249-6657, 팩스번호: 031-249-6480

E-mail: kimhs02041@hotmail.com

접수일자: 2018년 9월 5일, 심사일자: 2018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0월 19일

Copyright ©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이 없다(Eom, 2016). 이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베이비박스 설치 금지되어 있지만, 독일·체코·미국 등과 같이 익명출산 제도를 운영하여 산모가 출산전후 정부가 승인한 의료 기관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어(Seo, 2014) 영아와 산모의 건강을 모두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An, 2013).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50개주가 아기피난소법(Safe Haven Law)을 제정하여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였으며(Kim, 2013; Seo, 2014), 동양권 국가에서는 일본 구마모토현의 한 병원에서 황새요람이라는 이름으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Seo, 2014). 국내에서는 2009년 12월 한 종교단체에서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Jeong, 2012), 2014년 1개소를 증설하여 현재 민간단체에 의해 2개의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다(Park et al., 2017). 국내의 베이비박스는 골목길에 노출된 외부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으며,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맡겨짐과 동시에 건물 내부에 알람이 울려 맡겨진 영아를 즉각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베이비박스가 베이비 룸으로 변경되어 아이를 맡기는 대상이 직접 건물 안에 방문해 영아를 맡기기 전 상담과 숙고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었다(Ryu, 2015).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논란은 국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급속하게 증가한 영아유기 문제로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Kim, 2013). 베이비박스 운영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유기 사례는 2011년에 36건에 불과하였지만 이후 2012년 67건, 2013년 25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Jang, 2013). 같은 해 경찰청을 통해 집계된 전체 영아유기 사례는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입양특례법 시행 전후 총 영아유기 건수 중 베이비박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입양특례법의 절차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아동의 출생신고 없이 국내외 입양이 가능했으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친부모의 아동 출생신고 및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을 받는 입양허가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Kim, 2013). 이는 입양될 아동의 생모에 대해 알 권리를 존중하고 국내 양부모가 친생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생모의 익명성 권리와 대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im, 2013). 이후 2016년부터 영아유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의 친부모 외에도 입양기관장의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Ju, 2015)이 발의되었

으나, 영아 및 생모에 대한 정보 왜곡 및 훼손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비밀출산과 긴급영아보호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Oh, 2018)'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과 입양 특례법 시행의 연관성 문제 이전에 베이비박스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 국가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사회제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의 국가들은 가족의 한 형태로 미혼모·부자가정을 수용하여 보편적인 가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Kim et al., 2009). 실제 독일의 베이비박스는 주로 불법 체류외국인 여성, 마약상습자, 성범죄자 가정폭력의 피해자, 어린 10대 여성이 주로 이용하며 이중에도 독일의 이민문제 즉, 불법체류자의 무보험상태 및 강제 출국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o, 2014).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비혼 출산과 미혼모·부자가정에 대한 차별과 낙태 및 입양 선택을 종용하는 주변의 압력이 존재하며, 실제로 2016년 입양아동의 91.8% (808명)가 미혼모의 아동으로 보고되고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영아유기보다는 아동학대의 일환으로서 방임(Lee, 2000; Yoon, 1995)에 관해 연구해왔다. 직접적으로 베이비박스 및 비혼 출산에 관한 제도에 대해 연구(An, 2013; Eom, 2016; Kim, 2013; Seo, 2014)가 시작된 것은 대부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였다.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유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논란이 되자 영아유기와 관련된 해외의 법제도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모자간의 권리 충돌 문제와 이를 완충하기 위한 법제도 및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절차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박스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하여 살펴보기에는 부족하다. 영아유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본 연구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성관련 태도에 관해 살펴보았거나(Lee & Yoo, 2011), 대학생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 연구(Jun et al., 2014)가 이뤄져왔다. 이외에 비혼 출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는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들이 있다(Ahn & Kim, 2016; Kim & Lee, 2012; Lim & Lee, 2014; Park et al., 2017; Seo,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미혼모

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관해 살펴볼 수 있을 뿐, 영아유기에 관한 청년층의 보편적인 사회 인식을 직접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성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초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와는 확연히 다른 독립성과 다양한 역할탐색이 특징적이지만, 이에 따르는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아 성인기와 구별된다(Arnett, 2000). 따라서 아직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을 책임지기에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단계이다. 근래 화제가 되었던 영아유기 사건의 다수가 성인초기의 사회·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미혼모·부로 밝혀지고 있으며(Kim, 2018; Baek, 2018), 법적으로도 청소년한 부모 자립지원 정책의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부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8). 발달적으로 청년기에 형성된 인식은 성인기 삶의 기초가 되기에(Schulenberg et al., 2014), 이 시기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각 지역의 청년 취업 정책은 만 34세까지를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있어(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2018), 한국 사회의 실질적 청년기는 30대 초반까지 포함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층 집단 내에서도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이르는 초기 청년기와 30대 이후의 후기 청년기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 안정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30대 초반에 걸친 청년층을 대상으로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 허용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을 살펴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영아유기 허용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 허용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적 인식의 이유를 탐색한다.

셋째, 영아유기 허용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유기 허용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 허용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청년층으로 서울 및 경기지역의 대학에서 연구자의 편의표집에 의해 모집되었다.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한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지위, 종교유무, 베이비박스에 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

베이비박스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 그 이유에 관해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설명문은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제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출처: 위키 백과)’와 같이 기재하여 설문문항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베이비박스에 대해 모르는 연구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었다. 인식에 대한 이유는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영아유기 허용성

영아유기의 허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국의 낙태 허용기준 및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낙태 허용성 척도(Lee & Yoo, 2011)와 국내 베이비박스 운영시설의 영아유기일지에 남긴 미혼모들의 편지에서 언급된 영아유기 원인을 사용하

였다.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생명윤리전공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2인, 사회복지학 교수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도구의 문항을 재구성하고 타당도를 확인하였다(Content Validity Index [CVI], Mean expert proportion=0.85). 이 도구는 총 19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1점)’,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다(2점)’, ‘대체로 허용한다(3점)’, ‘전적으로 허용한다(4점)’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유기 허용성에 대한 비교가 용의하도록 척도의 총점 평균을 제시하였으며, 최저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유기에 대하여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93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의 한해 설문을 실시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정하였으며, 효과크기 0.25 (Cohen, 1969),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로 F-test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59명이었다. 연구기간 동안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168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소표본 159명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1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 시,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설명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였다. 또한 설문참여 중 중도포기나 응답거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수거된 설문 자료는 설명한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후 참여하길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첫 장에 첨부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후,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수거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Win 22.0 program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

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긍정·부정적 인식의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여 순위와 빈도를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유기 허용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층으로 성별은 남성 39명(24.4%), 여성 121명(75.6%), 평균연령은 24.5세(SD=9.9)였다. 연령층은 20대가 86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54명(33.8%), 30대 이상 20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재학 102명(63.8%), 대학 졸업 32명(20.0%), 대학원 재학이상 26명(16.2%)순이었다.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50명(31.3%), 없다고 응답한 사람 103명(64.4%)이었으며, 결혼한 사람은 19명(11.9%), 미혼인 사람은 140명(87.5%)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명(51.9%),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7명(48.1%)이었다. 베이비박스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07명(66.9%),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52명(32.5%)이었으며, 베이비박스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79명(49.4%),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7명(48.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아유기 허용성 척도의 점수 범위는 1~4점으로 총점 평균은 2점(SD=0.6)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

베이비박스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79명 중 64명이 그 이유에 대해 응답했으며, 복수응답으로 ‘유기된 아동의 생명과 안전’ 56회, ‘자녀 양육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정’ 10회, ‘유기된 이후 아동의 삶의 질’ 7회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의 필요성’, ‘현재로서 영아유기에 대한 최선의 방안’, ‘베이비박스로 영아유기가 증가할 것 같지 않음’은 각각 1회 언급되었다.

베이비박스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77명 중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한 응답자는 총 73명이었다. 복수응답으로 ‘영아유기 증가’ 36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감소’ 18회, ‘생명

의 존엄성과 아동인권 존중' 13회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유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회, '베이비박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회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사설 기관에서 베이비박스 시설을 운영하는 문제', '영아유기가 합법화되는 것',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국가복지제도 마련이 먼저',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함'이 각 2회씩 언급되었고, '공식적 입양이 보다 나은 절차'라는 응답도 1회 나타났다(Table 2).

3. 영아유기 허용성

영아유기 허용성 전체 평균은 2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영아유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지위에 따라 영아유기 허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집단에 따라 영아유기 허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632$, $p=0.029$), 사후검정 결과 '30대 이상' 집단은 '10대와 20대' 집단보다 영아유기 허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유기 허용성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6.725$, $p=0.002$), 사후검정 결과 '대학원 이상'의 집단은 '대학 재학' 및 '대학 졸업' 집단보다 영아유기 허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유무와 결혼

지위에 따라 영아유기 허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2.008$, $p=0.046$), '결혼한 경우' '미혼인 경우'보다 영아유기 허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568$, $p=0.011$) (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영아유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영아유기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알아보고,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영아유기 허용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부터 30대 초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편의 표집에 의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기에, 영아유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영아유기 문제에 관계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에 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베이비박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기된 아동의 생명 및 이후의 삶의 질'과 '미혼모·부의 양육이 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in Variable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M±SD
Sex	male	39	24.4	24.5±9.9
	female	121	75.6	
Age (year)	<20	54	33.8	
	20~29	86	53.8	
	≥30	20	12.5	
Education level	=attending college	102	63.8	
	=college graduate	32	20.0	
	≥attending graduate school	26	16.2	
Employed ¹⁾	no	103	64.4	
	yes	50	31.3	
Marriage status ²⁾	single	140	87.5	
	married	19	11.9	
Religious	no	77	48.1	
	yes	83	51.9	
Awareness of baby box ³⁾	no	52	32.5	
	yes	107	66.9	
Perceptions of baby box ⁴⁾	negative	77	48.1	
	positive	79	49.4	
Permissiveness of infant abandonment	minimum~maximum value	1~4		2.0±0.6

¹⁾missing=7, ²⁾missing=1, ³⁾missing=1, ⁴⁾missing=4.

Table 2. Reasons for Perceptions of the Baby Box

(N=137)

Item	Ranking	Frequency
The number of respondents with positive perceptions of the baby box		64
Value of abandoned child's life and safety	1	56
Unavoidable reason for not rearing a child	2	10
Child's quality of life after abandonment	3	7
Necessity of the baby box	4	1
Best way to manage child abandonment at present	4	1
The baby box may not encourage infant abandonment	4	1
The number of respondents with negative perceptions of the baby box		73
Increase the rate of infant abandonment	1	36
Decrease parental responsibility toward the child	2	18
The sanctity of life and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3	13
Negative perception of infant abandonment itself	4	4
Negative perception of the baby box	5	3
The baby box is managed by a private agency	6	2
A arranging a national welfare system should be the priority	6	2
A child in the baby box may not be safe	6	2
The legalization of infant abandonment	6	2
Mother should have had an abortion	6	2
Official adoption is the best alternative plan	11	1

multiple responses.

Table 3. Differences in Permissiveness of Infant Abandon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Permissiveness of infant abandonment	
		M±SD	t/F (p)
Sex	male	1.8±0.7	2.273 (0.208)
	female	1.9±0.5	
Age(year)	<20 ^a	1.9±0.5	3.632 (0.029)*
	20~29 ^b	2.0±0.4	
	≥30 ^c	1.6±0.7	
Education level	=attending college ^a	2.0±0.5	6.725 (0.002)**
	=college graduate ^b	1.9±0.5	
	≥attending graduate school ^c	1.6±0.4	
Employed	no	2.0±0.5	2.008 (0.046)*
	yes	1.8±0.6	
Marriage status	single	2.0±0.5	2.568 (0.011)*
	married	1.6±0.8	
Religious	no	2.0±0.5	-1.381 (0.169)
	yes	1.6±0.8	
Awareness of baby box	no	1.9±0.5	0.620 (0.183)
	yes	2.0±0.6	
Perceptions of baby box	negative	1.9±0.5	2.167 (0.418)
	positive	2.0±0.6	

*p<0.05, **p<0.01.

가한 부득이한 사정'에 방점을 두고 '영아유기의 차선택'으로서 베이비박스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양육할 수 없

는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을 우선하여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있어, 기존의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베이비박스 찬성에 대한 이유와 비슷한 가치관을 보였다(Kim, 2018.; Choe, 2014). 이와 더불어 비혼 출산을 경험하는 이들이 자녀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 기존의 베이비박스 및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친생부모의 익명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An, 2013; Eom, 2016; Kim, 2013; Seo, 2014).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가족의 형태를 법률적 혼인을 한 부부와 그들의 혈연자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친생모의 비혼 임신을 인지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낙태 또는 입양선택 압력이 작용하는 현실(Park et al., 2017; Sung et al., 2016)을 고려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층이 생각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비혼 임신과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낙인과 연관된다면, 비혼의 임신 출산 및 한부모가정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긍정적 답변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영아유기 증가'와 '부모의 책임감 감소', '아동의 생명과 인권 존중', '유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응답되어, 기존의 베이비박스 반대론에서 제시되어 온 영아유기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Lee, 2013; Choe, 2014). 또한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에 방점을 두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서 영아유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로 '사실 기관에서 베이비박스 시설을 운영하는 문제', '영아유기가 합법화되는 것', '공식적 입양이 보다 나은 절차'라는 응답이 이어져, 기존의 반대 여론과 같이 영아유기 시설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Lee, 2013; Choe, 2014). 그러나 소수 의견 중에는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비혼 임신과 출산은 및 모성 · 부성에 의한 양육보다 낙태하는 것이 낫다고 인식되는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Park et al., 2017; Sung & Kim,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식의 해석은 한국의 사회 · 문화적 배경과 베이비박스의 제도적 입지가 해외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서구 국가들은 종교시설에 설치된 것에서 베이비박스가 유래되었기에 비교적 그 역사가 길며, 이와 같은 역사적 토양에서 생명을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합의가 이뤄져 있어 자국 내 입양이 활발

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Eom, 2016). 이와 달리 강한 혈연문화로 입양보다는 난임 지원 제도가 발달한 국내에서는 유기된 영아의 낮은 입양 가능성과 이에 따른 아동의 삶의 질 저하 등에 의한 부정적 인식이 베이비박스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본 및 서구권의 베이비박스 운영 국가들은 제도적 허가를 받아 공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시설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더라도 헌법 및 실정법에 보호를 받고 있다(An, 2013; Eom, 2016; Seo, 2014).

반면, 국내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종교계 민간단체에 의해 설치 · 운영된 지 10여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적법한 절차라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적체계의 관리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장기간 묵인되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박스가 사실 종교단체의 온정적 시설운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유기된 아동의 안전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처럼 운영체계를 공적영역으로 이전하거나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운영으로 그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적영역에서 이뤄지는 베이비박스의 운영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베이비박스 운영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법령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아유기 허용성에 대한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영아유기를 허용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개인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 여부에 따라 영아유기 허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대 이상인 경우,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결혼 상태에 있는 경우 영아유기 허용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본 지표이며, 높은 학력은 높은 소득과 연관될 확률이 높고(Kim, 2010), 결혼 또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Lee, 2012). 높은 소득은 사회 · 경제적으로 안전한 환경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 임신 및 출산이 결혼과 강한 연계성을 갖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혼인상태에 있는 집단은 미혼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20대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미혼자가 다수이며, 이에 비해 직업을 가지고 기혼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30세 이상의 연구 대상자

들의 영아유기 허용성이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혼모의 양육 결정에 관하여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미혼모의 연령과 직업유무, 원가족 및 미혼부와의 관계가 미혼모의 양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Ahn & Kim, 2006). 즉, 학업의 중단 및 직장 퇴사 등과 맞물린 경제적 결핍과 원가족 및 미혼부와 단절된 사회적 고립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지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모·부자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의 연령은 기존 14세까지에서 18세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지원 금액 또한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되었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이와 같은 변화는 모든 아동이 부모에게서 양육될 권리를 인정하고(아동권리협약 7조), 국가가 비혼 출산을 포함하여 친생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과 의무를 존중(아동권리협약 5조; United Nations, 1989)하는 결과이므로 고무적이다. 그러나 실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돌봄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추정하면, 사회·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Park et al., 2017). 영아유기 문제를 해소하고 미혼모·부자가정의 자녀양육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할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이제 영아유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나 베이비박스스에 대한 찬반여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할 때이다. 가장 중요한 영아의 생명이라는 기본 권리를 토대로 아동이 부모에게서 양육 받을 사회권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모성·부성권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는 사회문화적 토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해 영아유기 예방 및 미혼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에 관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기되는 영아의 수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온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박스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이유는 유기된 아동의 안전과 삶의 질, 자녀 양육이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는 영아유기 증가와 부모의 책임감 감소 및 생명과 인권 존중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영아유기 허용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30대 이상일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결혼한 경우 영아유기 허용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일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 및 의견대립 양상과 일치하며, 청년층의 영아유기 허용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베이비박스가 유기된 영아의 생명권이라는 기본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반대로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합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아유기 허용성이 전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령 및 학력, 직업과 결혼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미혼의 자녀출산과 양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미혼모·부자가정지원 정책이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영아유기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해외의 베이비박스 사례와 미혼모 및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률적 고찰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청년층의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표본을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국한하여 편의표집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청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영아유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이 환영받고, 자녀를 양육할 모성·부성권이 우선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미혼모·부자가정의 육구에 적합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Ahn JJ, Kim J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decision: focusing on the role of social relationship. *J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2006;10(4):605-24.
- An MH. The birth of anonymity in French law system. *Chung-Ang J Legal Studies* 2013;15(4):213-34.
- Arnett JJ.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2000;55(5):469-80.
- Baek GY. A teenage couple let their child die. *The Kyung-hyang Shinmun* [Internet] 2018 May [cited 2108 May 22]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20938001&code=940202.
- Choe JH. Controversy over additional installing baby box data. *KBS News* [internet] 2014 Apr [cited 2014 Apr 5]. Available From: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839606>.
- Eom JH.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Baby's right to life: Around a matter of abandonment of baby and Baby Box. *J Seoul Law Review* 2016;23(3):91-124.
- Jang BJ. A proposal to reform the new system of adoption: An investigation before the Korean civil code and adoption mediation act. *Kyungpook Nat. Univ. Law J* 2013;41(1):501-32.
- Jeong CR. Dispute on morality of Baby Box. *Korean J Med Ethics* 2012;15(2):133-48.
- Ju YH.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Bill number 1917451, Seoul, 2015.
- Jun MH, Shin GY, Choi KS, Lee SA, Hong SW.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pregnancy and bortion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2):312-20.
- Kim HS, Lee MH.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in community-dwelling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J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12(11):225-35.
- Kim HY, Sun BY, Kim EY, Jung JH. Unwed mother's life world and policy agend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 Kim NR. A twenties couple who abandoned their child is imprisoned in prison. *Kukminilbo* [Internet] 2018 Oct [cited 2108 Oct 7] Available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40613&code=61121311&cp=nv>.
- Kim SH. Life-saving baby box: saved the life of 1336 infants. *Chosun News Press* [internet] 2018 Mar [cited 2018 Mar 17]. Available From: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3514&Newsnumb=2018033514.
- Kim SW. A longitudinal study on the change of life after marital dissolution in Korea. *J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2010;26(1):35-67.
- Kim SY. Baby box and anonymous birth regarding revis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J Law Review* 2013;54(4):315-41.
- Lee CH. Upsurge infant abandonments. *The Dong-A Ilbo* [Internet] 2013 Oct [cited 2103 Oct 14] Available From: <http://news.donga.com/3/all/20131014/58186127/1>.
- Lee JH. The effect of abandonment and noninterference on children and the investigation of approach to social welfare service.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00;4(1):39-61.
- Lee JH, Yoo GS.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d on support for policies for adolescent single parenting. *J Adolescent Welfare* 2012;14(1):63-91.
- Lee MS. Marital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lderly population: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 of Sociology* 2012;46(4):176-204.
- Lim HY, Lee HK. A study on the initial motherhood experiences of non-married mothers who decided to raise their babies: Hermeneutic grounded theory methodology. *J Korea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2014;45(3):35-69.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upport for independent of adolescent single parent. 2018 Aug [cited 2018 Aug]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7.do?mid=.
-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Overview of the employment package. 2018 Oct [cited 2018 Oct] Available from: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 Moon JS, Kim YH.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4;32(6):109-23.
- Oh SH. Special Legislation on Extension of Maternity Support and Secret Childbirth. Bill number 11800, Seoul, 2018.
- Park DG, Kim HS, Kim HS, Lee SA, Eom JH, Kweon OY. A study on experiences of child birth and parenting of unmarried single mothers: Who once were service users of Baby Box. *J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7;18(4):323-72.
-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he new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Internet] 2018 Aug [cited 2018 Aug] Available from: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 Ryu R. Is the baby room effective to prevent child abandon-

- ment?. SBS News [Internet] 2015 Dec [cited 2015 Dec 15] Available from: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91804&plink=ORI&cooper=NAVER.
- Schulenberg JE, Bryant AL, O'Malley PM. Taking hold of some kind of life: How developmental tasks relate to trajectories of well-being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04;16(4):1119-40.
- Seo JA. A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 construction of teenage mothers. *Studies on Korean Youth* 2009;20(1):281-308.
- Seo JH. Comparative study on anonymous birth. *J Chosun Law* 2014;7(2):79-128.
- Sung JH, Kim HJ. A study of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of bias against families of unmarried mothers. *J Family Culture* 2016;28(1):33-58.
- Sung JH, Kim JH, Shin OJ.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crisis of the unmarried mother and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J Korean Social Welfare* 2015;17(2):277-309.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Internet]. 1989 Nov [cited 1989 Nov 20] Available From: <http://www.unhcr.org/uk/4aa76b319.pdf>.
- Yoon HM. Child abuse and neglect cases and reporting system for the parent survey. *J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995;3(1):169-203.

K C I